

newsletter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인투인월드입니다.

㈜인투인월드는 환자와 연구자, 스폰서 간의 신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의료 혁신의 가치를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사람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연구자 주도 임상(IIT), 관찰연구(OS) 등 다양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긴장한 중국바이오 굴기...한국, 경쟁 넘어 협력 전략 모색

중국 바이오산업이 정부 지원과 대규모 투자,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미국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임상 시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력은 갖췄지만 단순 경쟁보다 협력과 전략적 분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을 새로운 파트너 시장으로 보고 임상, 연구개발, 제도 개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 바이오 지형 재편 속에서 한국 정부의 질적 지원 강화도 요구된다는 상황이다.

KRPIA “약가제도 개선, 치료 접근 성제고 위한 의미 있는 진전”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신속등재, 유연계약제, ICER 기준 상향 등을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과 혁신 신약 보상체계를 개선할 계기로 평가됐다. 다만 제도의 효과는 세부 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과 민관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낮은 신약 급여율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이 실제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향후 정책 실행력과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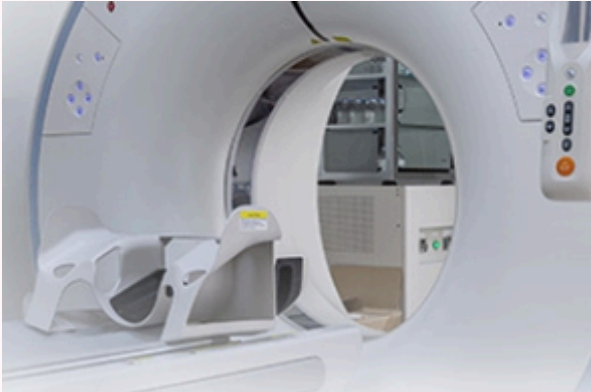


글로벌 암학회 시즌 돌입... '대세' 항암 R&D 전략 짚어보니

주요 글로벌 암학회를 앞두고 항암 R&D 전략이 단일 기전에서 ADC, TCE, TAT, TPD 등 차세대 모달리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정밀 치료와 면역항암 대안 전략이 확대되며 임상 진입 후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투자와 공동개발 흐름도 빨라지고 있으며, 글로벌 항암 시장 성장과 맞물려 차세대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newsletter



지각변동 시작한 수술 로봇 시장... 글로벌 3강 구도 굳어지나

수술 로봇 시장이 기기 성능 경쟁을 넘어 데이터와 플랫폼 주도권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존 강자는 설치 기반과 임상 데이터를 무기로 시장을 방어하고, 후발 기업들은 통합 수술실과 디지털 생태계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데이터 축적과 플랫폼 확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대 수술실 표준 운영체제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뉴노말 부상한 제약+의료 AI 결합 모델... 산업 구조 개편 속도

약가 인하 압박 속에서 제약업계가 의료 AI와의 결합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제약사 영업망과 의료 AI 기술을 결합한 협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수익화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동시에 자율 수술 로봇과 에이전틱 AI가 병원 현장에 도입되면서 의료산업 전반이 플랫폼, 데이터, 자동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향후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현장 적용력과 데이터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더 똑똑해지고 정교해지는 의료 로봇... 미세 수술까지 확장

의료 로봇이 AI와 정밀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백내장 같은 미세수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안과 특화 로봇이 수술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기존 범용 수술 로봇과 다른 경쟁 축을 형성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속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의료기기 기업 간 경쟁은 범용 플랫폼과 초정밀 특화 전략으로 더욱 다층화될 전망이다.

